

대신에프앤아이(주) Daishin F&I Co., Ltd.

수석연구원 서승기 02.2014.6279 skseo@nicerating.com 금융평가2실장 황철현 02.2014.6273 hch@nicerating.com

평가등급

	유효등급	등급추이
A+/-Negative	기업신용등급(원화/외화)	A+/-Negative
제 20 회 무보증 사채	무보증채권 (선순위)	A+/-Negative
본평가	단기신용등급	A2+
등급 확정일 2017.01.25		

평가근거

사업위험	AAA	AA	A	BBB	B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른 불확실성 ▪ NPL투자시장에서의 매우 우수한 경쟁지위
재무위험	AAA	AA	A	BBB	BB	B	
전망/기타고려요소	+		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내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익성 ▪ 이익적립을 통해 우수한 자본적정성 유지 ▪ 보유 자산으로부터의 회수현금흐름 감안 시 낮은 유동성위험
계열관계요인	0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 원, %, 배]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재무제표기준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09
영업이익	581	585	567	724	676	518
당기순이익	431	459	491	555	547	393
총포괄이익	448	445	489	559	547	390
총자산	13,710	17,483	16,412	19,186	20,096	21,967
자기자본	2,567	2,796	3,055	3,418	3,766	3,943
총차입금	10,513	14,100	12,859	15,274	15,638	17,466
총자산영업이익률	4.8	3.8	3.3	4.1	3.4	3.3
총자산순이익률	3.5	2.9	2.9	3.1	2.8	2.5
이자보상배율(배)	2.3	2.1	2.2	2.9	2.6	2.6
자기자본비율	18.7	16.0	18.6	17.8	18.7	17.9
총자산/자기자본(배)	5.3	6.3	5.4	5.6	5.3	5.6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이자보상배율=(세전계속사업이익+이자비용)/이자비용

등급변경요인

Stable 복귀요인

- NPL투자사업 부문의 경쟁지위 및 수익성 유지
-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금조달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불확실성 제거

하향조정 검토요인

- NPL투자사업 부문의 경쟁지위 및 수익성 저하 지속
-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금조달 부담의 확대
-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비용 부담의 장기화

평가근거

NICE신용평가(주)는 대신에프앤아이(주)(이하 '회사')의 상기 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로 평가한다.

등급전망은 **Negative**이다.

회사는 NPL투자시장에서의 우수한 경쟁지위 및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5월 한남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을 위해 LH공사와 토지매매계약(매매대금 6,242억 원)을 체결하고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및 재무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회사가 추진 중에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토지구입비용, 건설비용, 외부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등 1조 원 내외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등급확정일 현재 회사는 토지매매와 관련한 계약보증금 624억 원 및 중도금(1차~3차 할부금)을 납부 완료하였다. 회사는 사업 기간 중 총사업비의 10% 한도 내에서 자금을 부담할 계획이지만, 사업인허가 시기, 본PF의 실행여부, 추가건설비용의 발생여부, 주택경기에 따른 분양성공 여부 등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부담 규모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모니터링 요소

회사가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기자본 대비 규모와 불확실성 수준 등을 고려할 때, NICE신용평가(주)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경과 및 관련 재무적 부담의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결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회사의 주력 사업부문인 NPL투자와 관련하여 NPL투자 자산 규모 및 회수 관리 능력은 회사의 수익창출력 및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NPL투자사업에서의 안정적인 현금수익 창출 여부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와 함께 NPL투자와 관련한 총금융채권 규모 및 NPL투자사업부문의 수익성(ROA)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표 | 주요 등급조정 검토요인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09
총금융채권	11,893	15,181	13,926	16,251	15,816	17,154
NPL투자사업 수익성(ROA)	3.5	2.9	2.9	3.1	2.8	2.5

자료: 회사제시자료 등을 토대로 NICE신용평가 재구성

주1) 총금융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관계기업투자자의 합계 금액(단, 원화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제외)

주2) NPL투자사업 수익성: 향후 부동산개발 사업부문을 제외한 NPL투자사업 부문의 수익성을 별도 분석할 예정

회사개요

회사는 2001년 11월 우리금융그룹 내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대신증권(주)가 2014년 5월 7일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16.09, 100.0%)을 3,685억 원에 인수함에 따라 대신증권(주)의 주요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상호를 우리에프앤아이에서 대신에프앤아이로 변경하였다.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가 부실채권을 유동화하

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인수 및 처분업무, 그리고 부실채권 관리목적으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의 지분인수 및 처분업무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9월 말 현재 회사는 부실채권 투자 이후의 자산관리 및 회수 등을 담당하는 대신AMC(구, 우리에이엠씨)를 보유(회사 지분을 100.0%)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각각 22조 원과 3,943억 원이다.

한편,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서울 한남동 670-1번지 일원의 토지 및 건물 등(아파트, 10개동 512호)을 6,242억 원(원금)에 인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 및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매매계약에 따르면, 총 토지매매대금은 2016년 9월 말 현재 회사의 연결기준 자산총액의 28%, 자기자본의 158%에 해당하며, 토지매매과정에서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자산유동화를 통해 중도금(1차~3차할부금)을 전액 납부하고 토지매매계약상 지급일인 2018년 5월에 잔금(4차할부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사업위험

■ 모델 Profile 도출을 위한 사업위험 평가의 하위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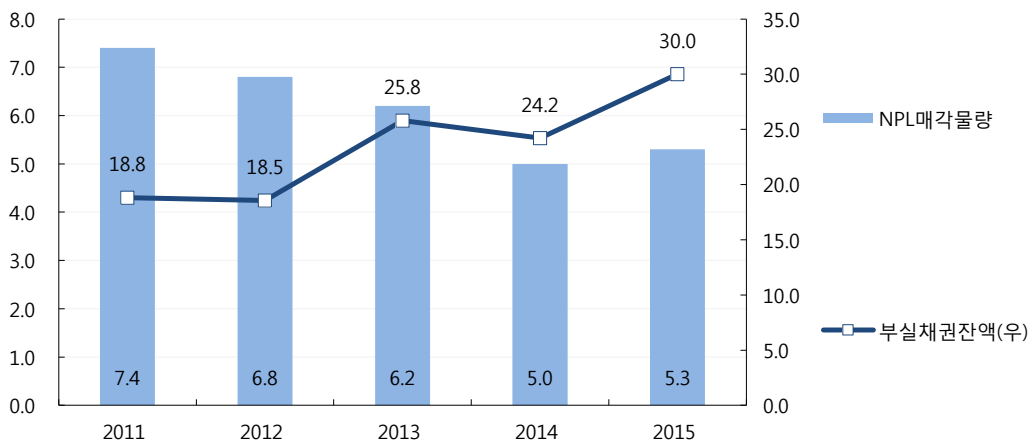
산업위험	AAA	AA	A	BBB	BB	B
경쟁지위	AAA	AA	A	BBB	BB	B

경기침체에 따른 NPL 채권 발생 및 업종 내 경쟁지위 고려 시 NPL 투자와 관련한 사업안정성은 우수한 수준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NPL매각물량은 7조 원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 5조 원 초반까지 감소하였다. 다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부실여신 증가로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은행의 NPL매각물량은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 국내은행(일반은행+특수은행) 부실채권 규모 및 NPL매각물량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NICE신용평가 재구성
 부실채권잔액=고정여신(일반은행+특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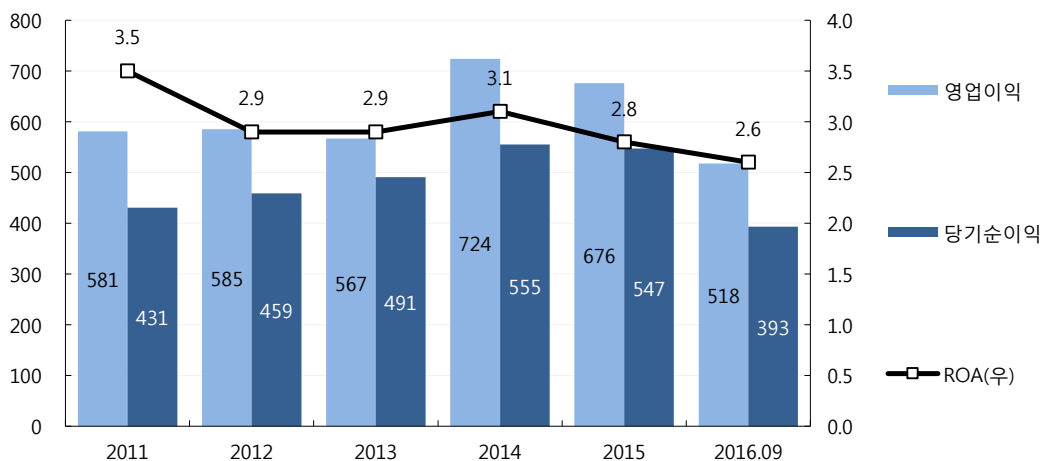
2014년 상반기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의 투자위축으로 회사의 연결기준 총자산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사업규모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영권 변동 이후 회사의 연결기준 총자산 규모가 증가(13.12/15.12/16.09, 16/20/22조 원)하는 등 업종 내 경쟁지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NPL 투자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NPL채권 인수가격의 적정성, 조달비용 최소화, 신속한 NPL채권 회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회사가 오랜 영업기간에 걸친 NPL채권 투자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인 대신AMC를 통해 효율적인 NPL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는 중단기적으로 NPL투자사업부문에서 안정적인 경쟁지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사가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분양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조달규모가 확대될 경우 본업인 NPL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규모 축소로 연결되어 NPL투자사업부문의 경쟁력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NPL 운용규모를 기반으로 우수한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회사의 사업구조는 크게 NPL채권 투자 및 회수(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유동화출자지분의 배당금 통한 투자금의 회수)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구조의 특성상 비용에서 인건비 등의 고정비 비중이 높은 가운데, NPL채권 원금 대비 회사 매입금액, 담보처분을 통한 NPL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시기 등에 따라 수익금액이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면, NPL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익변동성이 존재한다.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인 대신AMC의 우수한 NPL채권 관리 및 회수실적을 통해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최근 5년 평균, ROA/ROE, 3.1/17.0%)을 시현하고 있으며, 우수한 경쟁지위를 바탕으로 NPL채권 투자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NPL투자부문의 수익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 수익규모와 수익성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회사 제시자료 등을 토대로 NICE신용평가 재구성

다만, 최근 들어 NPL투자자산 인수를 위한 경쟁입찰 시 업종 내 경쟁심화로 인해 NPL채권 원금 대비 매입금액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과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담보처분을 통한 NPL채

권 회수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회사의 수익성 관리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된 SPC(시행주체)의 손익은 회사의 연결기준 손익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수익 발생 이전까지는 이자비용 및 사업비 등의 발생으로 회사의 전체 손익 관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위험

■ 모델 Profile 도출을 위한 재무위험 평가의 하위범주

자산건전성	AAA	AA	A	BBB	BB	B
자본적정성	AAA	AA	A	BBB	BB	B
유동성	AAA	AA	A	BBB	BB	B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성을 고려할 때, 회사 보유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은 유동화사채 및 유동화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투자자산의 기초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아파트, 상가, 공장)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담보부채권이다. 투자자산의 과거 평균회수실적 및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담보물건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액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산의 최종적인 자산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들어 NPL투자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입률이 상승(FY11/FY16.3Q 77.8/84.6%)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경기 침체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담보 가치 및 회수율의 하락 등으로 인해 자산건전성의 저하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 연도별 부실채권 투자 및 회수현황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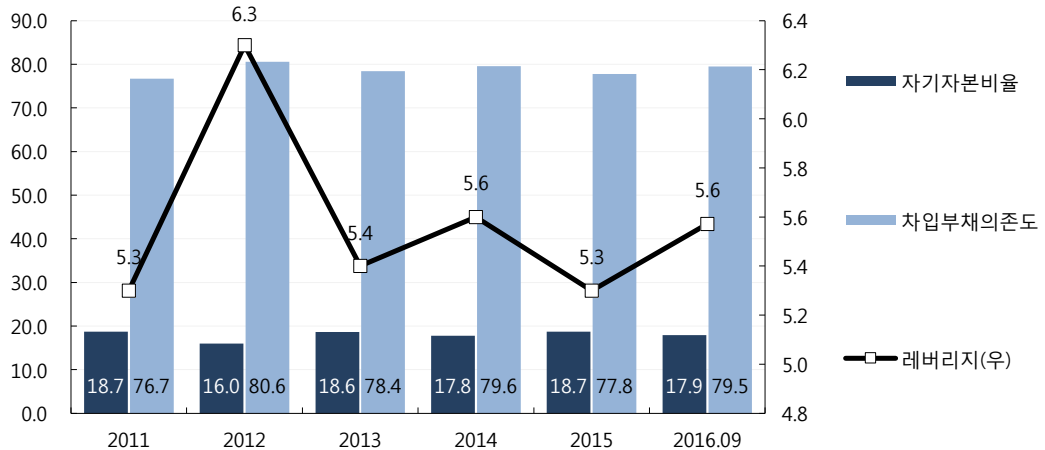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09
대출원금	15,749	19,639	12,333	14,039	12,159	8,024
매입가	12,254	15,661	10,342	11,830	10,022	6,790
매입률	77.8	79.7	83.9	84.3	82.4	84.6
회수액	12,902	16,528	10,620	9,374	4,543	519
회수율	105.3	105.5	102.7	79.2	45.3	7.7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금조달부담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있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NPL채권 투자규모의 확대에도 2016년 9월 말 현재 자기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배율(총자산/자기자본)이 연결기준 17.9% 및 5.6배로 2010년 말(각각 19.4%, 5.2배)과 비교할 때 자본완충력은 비교적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NPL시장 내에서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경쟁지위를 바탕으로 회사의 NPL채권 투자규모는 점진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한 수익성에 따른 이익적립을 통해 회사의 자본적정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회사가 시행 중인 부동산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해당 사업이 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자금조달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자본적정성 관리에 있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그림 | 자본적정성 관련 비율 추이

단위: % 배



자료: 회사 제시자료 등을 토대로 NICE신용평가 재구성

보유자산으로부터의 현금유입에 대응된 차입금 상환 일정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 가능

2016년 9월 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별도 기준)은 차입부채 1조 1,791억 원과 회사채 5,2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비중은 80.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가운데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그러나 차입금 상환과 유동화사채 등 투자자산에 대한 회사가 대응되고 있어, 회사의 실질적인 유동성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성 분석

회사에 연결기준으로 포함된 투자SPC는 NPL투자자산으로부터 회수금액을 MMF 등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 등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적 융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사는 은행권과 2,430억 원(16.09, 실행액 585억 원)의 한도대출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업종 내 매우 우수한 경쟁지위와 신인도를 바탕으로 필요자금의 자체조달이 가능한 가운데, 대주주의 재무적 지원가능성이 일정 수준 가능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회사의 단기유동성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고려사항

회사는 LH로부터 서울 한남동 670-1번지 일원의 토지 및 건물 등(아파트, 10개동 512호)을 6,242억 원에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에 따른 납부금액 중 계약금(624억 원), 금융비용,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자산유동화를 통해 LH의 신용도로 조달하였다. 중도금반환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구조상 매매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LH로부터의 중도금의 반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초기 자금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사는 토지매매대금,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1조 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인허가, 본PF대출 실행여부, 건설기간, 분양률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 토지매매계약 관련 자금조달 계획

(단위: 억 원)

구분	약정일자	원금	이자	납부금액	조달계획
낙찰금액	2015-05-04	6,242			
계약보증금	2015-05-10	624	0	624	자체자금(완료)
1 차할부금	2016-11-10	1,404	113	1,517	중도금반환채권유동화 를 통해 1 차~3 차할 부금 조달 완료 (외부자금 조달)
2 차할부금	2017-05-10	1,404	84	1,488	
3 차할부금	2017-11-10	1,404	57	1,461	
4 차할부금	2018-05-05	1,406	27	1,433	
합계		6,242	281	6,523	

자료: 매매계약서

본 평가는 주요 방법론으로 산업별 평가방법론-기타금융업(2015)과 산업별 평가방법론 총론(2015), 신용평가일반론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NICE 신용평가(주)의 홈페이지 "www.nicerating.com/공시/평가방법론"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현황 등 입니다.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및 부도율】

(기준년도: 1998 ~ 2016년, 단위: %)

장기 신용등급	정의	연간부도율		평균누적부도율	
		협의	광의	협의	광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0.00	0.00	0.00	0.00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0.00	0.00	0.00	0.00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0.00	0.00	0.65	2.35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0.00	0.00	1.84	5.70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3.85	3.85	8.14	12.10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0.00	0.00	16.23	20.00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0.00	0.00	12.42	21.15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0.00	0.00	14.35	34.91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41.10	35.29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	-	-

주1: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주3: 연간부도율은 2016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16년을 기준으로 한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임.

주4: 협의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주5: 광의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제3조 제1항 제9호의 광의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주)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입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주)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평가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중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평가보고서상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7.01.20 이고, 계약체결일은 2017.01.20 이며, 평가완료일은 2017.01.25 입니다.

최근 2년간 발행인과 체결·완료한 다른 신용평가용역 건수 및 총액은 각각 7건, 145.0백만원입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등급확정일 현재 발행인의 다른 신용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발행인과 체결한 비신용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금액은 0건, 0.0백만원입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등급확정일 현재 발행인의 다른 비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